

6·25 고난 속에서 시작...53년 이어온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 도량

부산 감로사



참회의 삼천배 “감로수 마셔요” 깨침의 사자후

부산 감로사에서는 매년 음력 2월 10 일(양력 2월 29일)부터 음력 2월 14일(양력 3월 4일)까지 '삼천불삼천배 참회정진기도법회'가 열린다. 올해로 53회를 맞았으니 햇수로 53년째다. 강산이 다섯 번 바뀌는 세월동안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참회정진기도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우리나라 삼천배 참회도량의 효시(嚆矢)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1980년 3월 3일 감로사는 3천 부처님을 모시는 삼천불전(三千佛殿)을 건립하여 삼천불삼천배 참회도량의 면모를 확고히 다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천5백 여명을 훨씬 넘는 불자들이 감로사 도량을 찾아 5일 동안 머물며 기도 정진하는 삼천배 참회기도의 역사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휘감고 있던 1951년으로 거슬러간다.

1951년, 부산 감로사에는 '현대 한국 불교의 울사'로 존경받는 자운성우(慈雲盛祐)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다. 당시 죽음과 굶주림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은 남(南)으로 남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전국 각처에서 수행하던 스님들도 자운스님의 인연을 좇아 감로사에 닿았다. 홍곡스님, 성철스님, 운허스님, 청담스님, 흥성스님, 벽안스님, 월하스님, 석암스님 등 그 당시의 선사들이 한자리한 것이다.

피난민들의 굶주림과 처참한 삶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로사에 모인 스님들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결단을 내리게 된다. 팔만대장경 조성의 공덕으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국난을 퇴치했던 역사를 다시 감로사에 되살려야 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중생들의 고통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은 스님들은 일주일간의 삼천배 기도를 발원했다. 1951년 음력 2월 10일,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70여명의 간절한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으로 감로사 삼천배 기도의 역사가 시작됐다.

"6.25 사변 같은 국난을 겪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업장이 두터워 그했다"고 해안으로 살핀 자운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사부대중이 모두가 뼈를 깎는 참회기도를 부처님전에 올리는 것이야 국난 극복의 지름길"이라며 삼천배 참회기도를 이어갔다. 당시로서는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는 도량이 거의 없어 전국의 불자들이 감로사를 찾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이 늘어나더니 1천5백 여명을 넘어서는 불자들이 감로사 참회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삼천배 참회기도가 시작되던 전국에서 물러든 불자들을 위해 스님들의 거처를 대중들의 기도를 위해



1980년대 초반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 정진법회를 마친 불자들이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1951년 자운·성철·청담 스님 등 발원으로 시작 2월 29일~3월 4일, 53년째 참회정진기도 법회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참회 정진의 열기는 뜨거웠다. 날로 늘어나는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78년, 삼천불전 건립을 발원하고 80년 3월 완공되면서 참회정진기도는 '삼천불삼천배 참회정진기도'로 이름을 바꾸었다. 근세 들어 삼천불을 모신 전각은 전국에서 처음이었을 정도로 감로사 삼천불전을 찾는 전국 불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처음, 7박 8일 동안 시작됐던 '삼천불삼천배 참회정진기도'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불자들의 편의를 위해 4박 5일로 축소돼 오늘에 이른다.

감로사 삼천배 기도는 53년 전부터 지금까지 참회기도와 함께 대덕스님들의 법문을 함께 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은 하루 세 차례 대덕스님들의 법석(法席)이 열린다. 일타스님, 지관스님, 광덕스님 등이 첫 법문을 한 곳도 바로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

도 법회였을 정도로 감로사 삼천배 기도정진법회에 서 법문을 하지 않은 스님이 없을 정도다. 스스로의 죄업을 씻어내고 맑아진 마음에 새겨지는 감로법문 덕분에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는 더욱 의미를 더한다. 올해는 가산문화원 원장 지관스님, 동국대학교 수인환스님, 전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 극락선원 원장 금담스님, 화엄사 주지 각성스님, 영산울림장 철우스님 등 12명의 법사스님들이 법문한다. 이렇게 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중생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일배 일배 참회의 기도를 올렸던 당대 선

사들의 원력은 2004년 2월 29일, 감로사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서울, 경기, 전라, 제주 등에서 모여든 1천 5명에 달하는 불자들은 감로사 삼천불전, 극락전, 독성전, 노천 마애불암, 칠성전, 마당 등에 자리를 잡고 참회 정진에 들어간다.

하루 6백배씩 5일 동안 3천배 참회기도를 하게 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참회기도,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참회기도에 이어 큰스님 법문, 삼천부처님전 불공, 선방부도 인연 영가 천도법회가 열린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참회기도, 큰스님 법문에 이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광명진언 등 정근의 순서로 기도가 계속된다. 오후 불식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참회기도와 법문을 마치면 10시에 하루 기도를 마치게 된다. 스님들도 예외는 없다. 53년 전 스님들이 그러했듯 스님들도 대중들과 똑 같이 절을 하는 것이 감로사 삼천배 기도의 특징이다. 마지막날에는 참회기도의 공덕을 축생과 이웃에게 돌리는 방생법회로 회향한다.

어머니를 따라 온 10대 학생부터 90대 노모까지 동참하는 감로사 참회정진기도는 육체적 장애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라도 절을 한다. "반배로라도 스스로 지은 죄업을 스스로 참회해야 한다"는 혜총스님의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다.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 후에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고 병이 낫는 등 기도가파피를 입자 스스로의 기도에 더욱 철저히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85년 경, 배우 김홍희씨는 감로사 삼천불전에 가서 2번째 줄 19번째 부처님께 기도하라는 현몽을 받고 감로사를 찾아와 그 사연이 회자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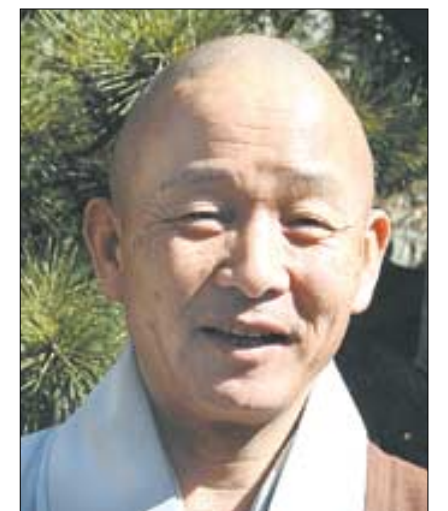
자운 스님과 인연으로 30여 년째 삼천배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성심(73)보살 또한 3년 전 사기를 당해 집을 잃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일심으로 기도를 지킨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감로사의 삼천배 참회기도는 부처님 당시의 대중들이 운집해 부처님의 설법을 들던 영산회상을 떠올리게 한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인연을 지녔듯 감로사 삼천배 기도는 개인인의 업장소멸로 성불의 인연을 심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정진기도 동참 문의
전화: (051)809-0926 /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

인터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간절한 참회는 기도·수행의 근본”

“참회기도의 공덕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불자라면 참회기도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보면 저절로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참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삼천배 참회기도를 이어오며 개인의 업장 소멸과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 있는 혜총스님은 참회기도의 공덕을 거듭 강조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혜총스님 스스로도 삼천배를 하고 난 한참 뒤에야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경험을 한 까닭이다. 평생 절 수행을 해왔던 자운스님은 53년 11살의 어린 혜총스님에게 ‘삼천배를 하면 머리를 깎아 주겠다’고 했다. ‘나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절을 하라고 하지?’ 하는 의문을 품은 채 혜총스님은 통도사 적멸보궁에서 밤새워 삼천배를 마쳤고 마침내 삭발을 할 수 있었다. 스님은 밤새워 절을 하고 적멸보궁을 기어오른 나날을 잊지 못했던 참회기도의 의미를 이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 무심코 죽었던 개미 한마리, 물고기 한 마리까지 나와 돌이 아닌 불성을 가진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스님은 “육신과 아집, 무명에 덮여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 마음씀씀이로 인해 끊임없이 업을 지어가고 있음을 인식하면 참회기도는 절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절수행으로 육체와 마음을 조복 받으면 내게 닦진 모든 것이 나의 업에 의해 벌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참회로 내 업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발원이 곧 참회이며 수행의 첫걸음이 된다”고 말했다.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 회관은 성불 인연 심는 곳”

삼천배 원조 도량 가꾸기에 전국 불자들 동참 이어져

반세기동안 이어져 온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참회정진기도는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회관(사진) 건립을사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년 전 시작된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회관 불사는 업장 소멸로 성불의 인연을 맺어주길 발원해 온 혜총스님의 오랜 원력이 담긴 대작불사다.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회관이 건립되면 감로사는 참회기도와 문화, 복지 포교의 양 바퀴를 모두 굴리는 전방도량으로 거듭나게 된다.

원호스님이 세운 영원암이 1947년 자운스님에

의해 감로사로 이름을 바꾸고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한 것처럼 85년부터 시작된 혜총스님의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회관 건립 발원으로 21세기형 참회기도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50% 공정이 진행된 지하 3층 지상 2층의 참회기도회관은 1천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복지,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연건평 230평

에 각종 문화강좌를 여는 감로불교대학, 식당 겸 신도들의 수행공간, 삼천불 회관 등의 시설을 갖춘 전국 유일의 참회기도회관이 탄생하는 셈이다. 사무실 공간에 입주하게 될 사회복지연구원에서는 불교 복지 연구 및 자료화로 불교복지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주지 혜총스님은 “IMF로 한참 어려울 때 불사를 시작했다. 이 불사가 끝날 때에는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국민들이 편안해지길 기도하면서 불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